



## 제16차 WPC 캐나다 총회 개최

- 「세계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 인류와 산업, 기술교류 및 가치창조」를 주제로
- 캐나다 캘거리에서 6월 11일~15일까지 5일간 성대히 개최되
- WPC 한국위원회 참가단 나병선 회장, 이종원 부회장 등 18명 참석

세계석유회의 제16차 정기총회 및 국가위원회 전시회가 6월 11일~15일 (5일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인류와 산업, 기술교류 및 가치창조”를 주제로 세계 97개국 4,600명의 대표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지난 97년 북경총회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공사 나병선 사장등 1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 개최지인 캘거리는 석유개발을 통해 불과 10여년 사이에 캐나다 4대 주요 도시로 성장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많았으며 자국의 석유자원 개발을 홍보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WPC 총회는 본부 임원 및 과학위원들의 임원회의와 각종 기술발표회, 국가위원회 홍보부스전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본부 임원들도 상임위원회 및 집행이사회에 참석하여 차기 임원선출에 참가하였으며 다른 참가자들은 24개 분과위원회별로 개최되는 포럼 발표회에 참가하고 국가위원회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국내 석유산업을 홍보하였다.

기술발표회에서는 Sir John Browne, BP Amoco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Plenary 강연회와 Dr. Rilwanu Lukman, OPEC 사무총장 등 2명의 특별강연, 1명의 Dewhurst 강연이 있었고, 10개의 “Review and Forecast Paper”가 발표회가 있었다.

### ■ WPC 본부 임원 선출

- 본부 회장으로 Mr. Elvald M.Q. Roren 노르웨이 DNV 선임부사장 당선

노르웨이의 Elvald M.Q. Roren, DNV 선임부사장 과 아르헨티나의 Carlos B. Bechelli, 전 Gas del Estado 사장이 출마하여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2차 투표에서 39대 9로 Mr. Roren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선임부회장 선출에서는 아르헨티나 Carlos B. Bechelli 회장후보가 선임부회장 후보를 사임하여 중국의 Wang Tao와 이란의 Sayed Mehdi가 출마, 2차 투표에서 중국의 Wang Tao가 38표를 얻어 선임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3명의 부회장에는 우루과이 Pedro Nicolas Baridon, 프랑스 Christian Rederon, 알제리 Mohammed Laouad가 선출되었다.

총회 행사 지정 호텔인 캘거리 Palliser Hotel에서 6월 14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신임 회장의 임기는 차기총회 폐회일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후보자중 노르웨이 Roren 회장후보는 한국을 방문하여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한 바 있고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비교적 유럽과 중남미 영향권을 벗어나 중립세를 유지하던 아시아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우리나라의 참가단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한국석유공사 사장 개발본부장 기술실장 과장 과장	나병선 한상규 송진현 김현용 정대연	위원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강주명	위원회 이사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부장 부장	김종술 김명남 조용돈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상무이사 기획조정처장 대리	권태윤 정규태 김재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손재익	
대한석유협회 회장 차장 대리	이종원 이철규 이윤기	위원회부회장
한국가스연맹 대리	신용섭	

■ 국가위원회 부스(National Committee Stand) 개설

- 우리나라를 비롯한 37개 WPC 회원국 부스 운영
- 자국의 석유·가스산업 홍보와 정보자료의 교환

WPC 총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석유가스산업 현황과 발전상을 홍보하며 각국 대표단의 휴식과 연락 등을 목적으로 희망 회원국가에 국가위원회 부스를 제공하였다.

국가위원회 부스에는 총회 개최국인 캐나다, 차기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을 비롯하여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미국, 러시아 등 총 37개국이 참여하여 각국의 석유

가스산업 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사업 및 관광사업 등을 홍보하였다.

특히 차기 총회 개최지인 브라질과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의 홍보용 자료외에도 배지 및 가방, 볼펜과 같은 기념품을 준비해 나누어주는 등 참가자들에 대한 홍보가 매우 적극적이었다. 산유국의 부스는 대규모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국영석유사들이 직접 부스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5차 북경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 면적의 부스(3m×3m, 9㎡)를 개설하여 한국석유공사 홍보포스터, 대한석유협회의 해외석유개발 현황, 5대 정유사 및 국내석유산업 현황포스터, 한국가스연맹의 LNG 13관련 포스터 및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수를 담은 관광안내 포스터를 전시하였으며, 국내석유산업 현황 및 통계자료, 회원사 brochure 등을 방문객들에게 배포하고 우리 석유화학 및 가스산업을 홍보하였는데 부스 개설 5일동안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노르웨이의 Elvald M.Q. Roren과 선임부회장으로 선출된 중국의 Wang Tao 등 약 2,000여명이 우리 부스를 방문하였다.

방문객들은 최근 세계 석유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갖게 된 국내 석유산업 및 정제, 해외석유탐사·개발현황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LNG 등 가스분야에 대한 국내 업계의 동향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 홍보부스 개설국가

Algeria, Angola, Argentina, Australia, Belgium, Brazil, Canada, China, Croatia, Cuba, Czech, Denmark, France, Gabon, Hungary, Iran, Italy, Japan, Korea, Kuwait, Netherlands, Nigeria, Norway, Papua New Guinea, Peru, Poland, Romania, Russia, Saudi Arabia, Slovenia, South Africa, Tunisia, Turkey, UK, USA, Venezuela, Vietnam (총 37개국) 🇸🇰